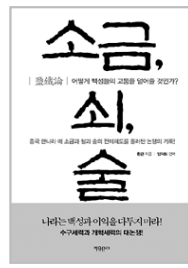


국가란 무엇이고, 백성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금, 쇠, 술

환관 지음



“원컨대 소금과 철과 술의 전매권과 군수법(均輸法)을 없애고, 근본인 농업을 권장함으로써 말단인 상공업을 물리쳐서 농업의 이로운을 넓힌다면 편안할 것입니다...”(소장 관리 문학)

“지금 이것을 폐지한다면 안으로는 국고가 텅 비게 되고, 밖으로는 변방을 수비하는 병사들이 변방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들을 장차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고위 관리 대부)

지금으로부터 2200여 년 전 중국 한나라 고위 관리들과 소장 관리들이 소금과 철, 술의 전매와 군수법 등 재정정책을 두고 논쟁을 벌인다. 고위 관리들은 ‘유지’를, 소장 관리들은 ‘폐지’를 주장한다.

최근 출간된 ‘소금, 쇠, 술’(환관 지음, 임덕화 편역)은 이때의 논쟁을 기록한 ‘염철론’(鹽鐵論)을 편역한 것이다.

당시 논쟁은 황제가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하려고 어명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승상이 주재하는 이 토론에는 공경대부 등 보수적인 고위 관리들과 문



고대 국가를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해 소금과 철, 술의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專賣)제도를 운영했다. 신안군 증도면 태평역전 천일염 작업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학, 현량 등 개혁적인 소장관리들이 참여했다. 신진 관리들은 유가(儒家)의 경술을 익히고 벼슬길에 나선 이들로 ‘예의’(禮義)를 중시했다.

수구 기득권 집단과 신진 개혁세력 간 토론은 재정정책을 비롯해 대외정책, 관리 등용·인사정책 등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당시의 보수 기득권 세력과 유학자인 신진 세력이 정치의 근본과 백성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이들의 논쟁은 시대를 초월해 현대의

국가운영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보수·진보간 대립이 심화된 한국 정치현실과 대비돼 더욱 의미있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기원전 81년 2월, 중국 한나라 조정에서 벌어진 ‘정치’ 논쟁의 근본인 ‘국가란 무엇이고, 백성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물음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이다.

논쟁은 소장 관리들의 승리로 종결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술의 전매만을 폐지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논쟁에 참석한 현량과 문학 등 60여 명의 소장 관리

들은 황제에게서 대부의 반열에 드는 벼슬을 제수받았다고 한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바른 정치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관료나 정치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4·13 총선이 끝났다. 국회에 입성하는 의원들이 정쟁보다 수천 년 후에도 부끄럽지 않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자유문고·1만 4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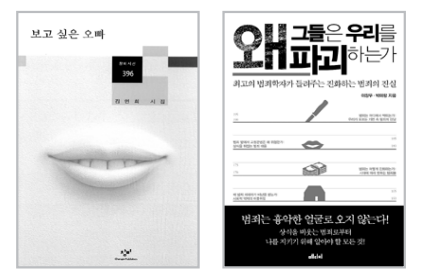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보고 싶은 오빠=1989년 ‘현대사학’으로 등단한 이후 줄곧 날것 그대로의 상상력과 거침없는 표현을 해 온 김언희 시인의 다섯번째 시집, ‘시단의 매두사’로 불릴 만큼, 첫 시집부터 네번째 시집까지 5~6년 간격으로 시집을 낼 때마다 생애 대한 노골적인 표현과 폭력적인 언어 구사, 잔혹하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매번 화제를 모으며 충격을 안겨주었던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독자적인 시세계를 선보인다. <창비·8000원>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한국이 ‘범죄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이창무 교수는 시대 변화와 함께 진화해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연구의 권위자 박미량 교수는 한국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모르거나 부정하여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 두 저자가 각종 범죄 사례를 분석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려준다. <메디치·1만5000원>

▲왜 학교는 질문을 가르치지 않는가=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에게 억압과 굴종의 공간이 되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추적해간다. 이미 학교는 질문을 허락하지 않고 복종과 주입을 강요해왔고, 학생들은 5지선다형에서만 정답을 찾았을 뿐이다. 저자의 깊은 문제의식은 ‘질문 없는 학교’와 ‘질문하지 않는 학생’에서 시작한다. 현재의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질문의 절실함을 이야기한다. <갈라파고스·1만5000원>

▲버티는 힘=독자들이 스스로 자기 도구를 결정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존의 인문학을 선보이는 책. 생존의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문학이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인문학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미증유의 시대를 버티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문학, 역사, 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인문학의 범위는 우리 삶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저자의 생활밀착형 생존의 인문학은 이런 간단한 원리에서 시작한다. <비아북·1만4000원>

▲지슬에서 청야까지=윤종록 영화평론집. 영화의 직접현장에서, 특히 독립영화의 현장에서 공동체생명을 이끌어 가는 행정이면서 동시에 평론가인 저자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듯 상업영화와 독립영화를 넘나드는, 또한 영화의 이론과 실재를 넘나드는 지식과 견해, 인식과 통찰이 대단히 사유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담겨 있다. 안국진, 한준희라는 두명의 젊은 유망감독과의 올 ‘2016 신년 무비토크’를 전면 수록했다. <독선재·1만4800원>

인터뷰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 호기심이 필요해

인터뷰 특강

지승호 지음

지승호는 ‘비정규직 독립 인터뷰 노동자’다. 마흔 다섯권의 인터뷰집을 펴낸 그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인다. 김어준과 함께 한 ‘닥치고 정치’, ‘신해철의 패변독설’ 공지영 ‘괜찮다 다 괜찮다’, ‘서민의 기생충 같은 이야기’ 등이 그의 손을 거쳐 나왔다. 봉준호·박찬욱·유시민·장하준·표창원·박원순 등도 그와 마주 앉았다.

그가 펴낸 인터뷰집을 읽으면 무엇보다 사람에게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수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한 글자도 결여 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도 그려진다. 그는 “인터뷰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좀 어울려 보이더라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에게 자신

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군요”라는 말을 하는 지도 모르겠다.

지승호가 펴낸 ‘인터뷰 특강’ 역시 그의 품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책이다. 최고의 인터뷰어 중 한명으로 꼽히지만 전혀 체제하지 않는다. 이런 류의 책을 펴내는 이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전부인양,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 인터뷰 하러 왔다는 사람이 자신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자 “지승호를 사칭하고 온 것은 아닐까” 의심했다. 만화가 아우일의 말처럼 솟기가 거의 없는 그의 품성은 그가 펴낸 인터뷰집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다.

그는 인터뷰어의 역할이 독립다큐멘터리 감독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대상을 선정해 섭외하고,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인터뷰이의 생각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수습할지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설명이다. 책은 인터뷰 당시 자신을 칭찬했던 인터뷰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설명을 위해서다. 또 성실한 그는 다른 인터뷰어의 말이나 기록, 책에 나오는 명구들을 활용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타인을 의심하는 자신도 의심해 보는 것, 자신이 망가지는 것까지 그대로 기록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 이게 지승호가 인터뷰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호기심’이다. 그의 책을 교재로 쓰겠다고 한 평론가가 그에게 전했다. “너는 정말 궁금해하더라.”

소설가 레이먼드 챈들러가 말했다. “인터뷰에 내 이름을 달고 나인 척 나오는 남자는, 대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웬 비열한 놈이더군요.” 인터뷰를 업으로 삼는 사람 중 한명으로서 읽다 보면 뜨겁게 지는 대목이 많다. 지승호가 보수 진영 대표 인물과 인터뷰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궁금하다. <오픈하우스·1만 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책

▲깜빡깜빡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일본의 대표 아동 문학가 마츠이 다다시와 그림책 작가 초 신다가 함께 작업한 어린이 그림책의 고전. 신호등 덕분에 우리는 마음 놓고 길을 건너고 탈것을 이용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호등이 고장 나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주변에서 늘 보는 신호등의 고마움을 느끼게 해 준다. <상상스쿨·1만2000원>

▲안녕 크렌쇼=뉴베리 상 수상 작가가 들려주는, 가족과 우정과 회복에 대한 마법 같은 이야기. 상상 친구와는 어울리지 않게 사실을 중요시하는 과학자를 꿈꾸는 잭슨의 캐릭터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지가 되는 상상 친구 크렌쇼가 묘한 대비를 이루며 작품의 흥미를 더해 준다. <책과 콩나물·1만2000원>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부모와 아이의 하루 일과를 통해, 몸은 직장과 유치



원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주는 김영진 작가의 그림책. 이번 책에서는 아빠가 주말에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며, 평소와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 놓는다. <길벗어린이·1만2000원>

▲동궁이의 양심=인성 생활 동화 시리즈. 첫번째 ‘동궁이의 양심’은 양심을 왜 꼭 지켜야 하는지, 그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는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이다. 동궁이의 이야기를 통해 양심이란 무엇인지, 왜 양심을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했다. <파랑새·1만원>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 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9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기업류, 가동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